

Takeo Kanade

CAPSULE INTRODUCTION

SNU CSE DISTINGUISHED LECTURE SERIES

Takeo Kanade 교수님은 컴퓨터비전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분이다. 컴퓨터 비전 교과서의 여러 부분에 언급되는 분이다. Lucas-Kanade algorithm 은 tracking (동영상에서 특정 물체를 추적하는 작업)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론이고 얼굴 인식을 위해 기계학습 방법을 처음으로 적용하셨으며, 신경망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이미 80 년대에 시도하신 예가 있다. 2001 년 1 월에 열린 35 회 수퍼볼을 CBS 에서 중계를 하였는데 여러 대의 카메라를 경기장에 설치하여 영화 매트릭스처럼 특정 선수의 장면을 여러 방향에서 돌려볼 수 있는 EyeVision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VR/AR 의 기초가 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. 즉, Takeo 교수님은 컴퓨터비전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에도 역사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.

또한 Takeo 교수님은 현재 로봇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Carnegie Mellon University 의 Robotics Institute 를 만들고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석학이다. Raj Reddy 교수님과 RI 설립에 함께 하셨다. 일본의 Kyoto University 에서 1974 년에 박사까지 받으신 후 교수로서 일을 하시다가 1980 년도에 Robotics Institute 에 합류하셨고 1982 년에 종신 교수직에 오르셨으면 1992 년부터 2001 년까지 10 년간 Robotics Institute 의 책임자를 맡으시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 냈다.

Takeo 교수님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으시다. 한국 컴퓨터비전의 1 세대 대표 연구자이신 KAIST 의 권인소 교수님의 지도 교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학생들이 Takeo 교수님의 지도를 받은 바가 있다. 개인적으로도 2009 년 CMU CSD 의 박사과정에 입학했을 때 첫 지도교수님이 Takeo 교수님이셨다. 약 6 개월 정도 후에 Eric P. Xing 교수님과 co-advise 를 시작하였고 이후 Takeo 교수님께서 은퇴를 고려하시며 학생을 줄이는 과정에서 Eric 교수님으로 완전 변경하기는 했지만 Takeo 교수님과는 CVPR 2011 에 Oral 로 선정된 논문 한 편을 공저한 바 있다. 흥미롭게도 이 논문은 Stanford University 의 Fei-Fei Li 교수님과도 함께 한 논문이다.

김건희, 2024 년 8 월